

〈제 733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 5·18 공익통장 ‘넋이’ 판매 수익금 2천만원 기부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5·18기념재단에서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넋이’ 5월, 그 날을 기억하며(이하 ‘넋이통장’)의 판매 수익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넋이 예·적금’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의 일부분을 2021년부터 3년 연속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천

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넋이 예·적금’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과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넋이 예·적금’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신세계

◆"먹는 물 기부해요"...광주신세계-한섬원 ESG 프로젝트



광주신세계와 한국섬진흥원이 ESG 경영·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섬 지역에 물을 기부했다. 광주신세계는 9일 완도군청에서 한국섬진흥원과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열고 생수 1만병 (2L, 1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물은 완도군 넓도 섬 주민 560여 명에게 고루 나누어질 예정이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섬 주민들은 항상 식수와 물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우리의 도움이 물 걱정에서 잠시라도 잊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테크노파크

◆광주TP, 국제전기차엑스포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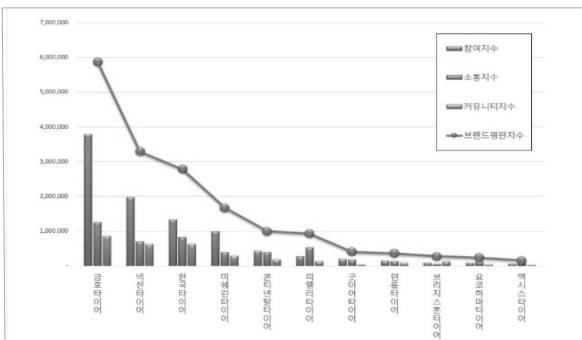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지난 2일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및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50개 국가와 2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최신 이슈를 선점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주요 아젠다로 선정해

진행했다. 전시회, 콘퍼런스, 미래 모빌리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전세계 기후 위기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축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광주가 탄소중립 중심 도시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타이어 브랜드평판 5월 빅데이터 분석 톱…넥센타이어 뒤이어



최근 한달간 타이어 브랜드평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1위 금호타이어 2위 넥센타이어 3위 한국타이어 순으로 조사됐다. 1위를 기록한 금호타이어 브랜드는 참여지수 378만637 소통지수 124만8,130 커뮤니티 지수 84만7,59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는 587만 6,363으로 분석됐으며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545만9,872와 비교해보면 7.63% 상승했다.

"금호타이어 브랜드의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34% 상승, 브랜드소통 15.49% 상승, 브랜드확산 1.23%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기아(주)AutoLand광주

◆기아 오토랜드광주, 기후위기대응 '그린공동체 프로젝트' 후원



기아 AutoLand(오토랜드)광주는 9일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위드 그린공동체 프로젝트'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관·기업이 함께 환경,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은 그린공동체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그린생활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켜 함께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기아위드 그린공동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기아 AutoLand광주는 앞으로도 기아위드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지역 장애인 초청 야구 관람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로 초대해 KIA 타이거즈 야구 경기 관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구 관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장애인들에게 경기 관람 통해 즐거움을 선물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마련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나눔과 봉사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드림CEO아카데미 원우회

◆드림CEO아카데미 원우회, 광주드림에 발전기금 기탁



드림CEO아카데미 원우회가 지역언론 광주드림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컨벤션홀2에서 열린 2023 드림 CEO 아카데미에서 원우회장인 (주)호원 양진석 회장이 회원 70여 명의 뜻을 모은 후원금을 본보 김명술 사장에게 전달했다. 광주드림은 원우회의 후원금을 언론 성장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본보 김명술 사장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에서 원우회가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더욱 분발하고 책임감 있게 언론의 정론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DH글로벌 회장 부안군민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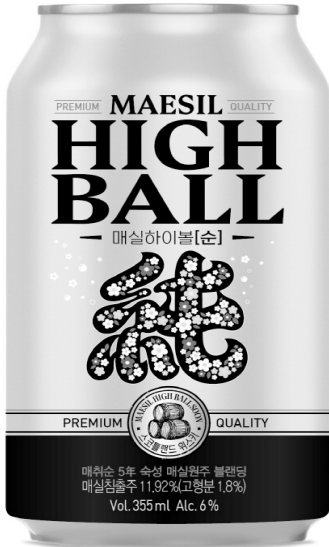


DH글로벌(이정권 회장)이 ‘2023년 부안군민대상’을 수상했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해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애향부문 수상자 이정권 회장은 생활가전기업 DH글로벌을 경영하는 기업인이자 출향 부안군민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최근엔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기부자로 등록했다. 또 부안군내 첫 출생 가정에 축하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평소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해양조

◆보해양조, 국내 최초 매실 위스키 하이볼 ‘순’ 출시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가 국내 최초로 매실을 사용한 위스키 하이볼 ‘순(純)’을 출시했다. ‘순(純)’은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1982년부터 41년간 매실주를 생산해온 보해양조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했으며, 제품명 또한 보해양조 정통 숙성 매실주 브랜드 ‘매취순’에서 비롯됐다.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스키, 하이볼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보해양조의 매실 기술력을 접목한 매실 하이볼 순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산뜻한 매실 맛과 스모키한 위스키 향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국내 최초 매실 하이볼 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위험 체험해보세요”… 안전보건공단 담양안전체험교육장 개관



산업현장에서 마주치는 각종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장이 전남 담양에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은 11일 전남 담양군에 마련된 담양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가졌다. 체험교육장은 실내형 시설로 건립돼 날씨에 관계없이 모든 체험교육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은 “체험교육장 건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나아가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오비맥주

◆오비맥주 카스, 스페셜 에디션 쿨러백 출시



오비맥주 카스는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함께 ‘라인프렌즈 스페셜 에디션 쿨러백’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라인프렌즈 스페셜 에디션 쿨러백은 카스 355ml 제품 24캔과 휴대용 쿨러백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다. 쿨러백은 다가오는 여름을 겨냥해 카스의 시그니처 블루 컬러에 라인프렌즈 캐릭터인 ‘브라운’이 여름휴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디자인됐다. 내부는 방수 코팅 원단 소재를 사용해 보냉성을 높였다.

백주환 오비맥주 홍보이사는 “매년 여름철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쿨러백을 출시하고 있다”며 “라인프렌즈 스페셜 에디션 쿨러백과 함께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텍캐리어

◆오텍캐리어-한국하니웰, 에너지 절감 빌딩 솔루션 업무협약



오텍캐리어(강성희 회장)가 한국하니웰 빌딩테크놀로지스 사업부(대표 임정희)와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중립 빌딩 솔루션 실현,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지난 11일 여의도 오텍캐리어 본사에서 구자익 오텍캐리어 부사장, 박선용 한국하니웰 전무 등 양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양사는 기존 고객·신규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양사 협업으로 에너지 절감 빌딩 솔루션을 구현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오텍캐리어(강성희 회장)는 "두 회사 기술력이 만나 빌딩 솔루션 분야에서 발휘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만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603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과학기술 패권국가 · 강사 : 양향자 (국회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을 반도체 기술 축적과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능한 이유는 챗GPT를 중심으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센터, 5G, 6G 통신장비, 모빌리티 등 모든 산업의 기본입니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산업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나노 기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술 축적이 앞으로 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한민국 반도체 의존도가 큼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 차량용 반도체 컴포넌트 하나 없어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올 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대량해고 사태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안보, 국방 등 모든게 다 기술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모순 극복의 역사입니다. 반도체는 64k에서 1메가로 64메가로 1기가로 계속 해서 키워야합니다. 그러면서 크기는 줄여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과거보다 빠르게, 전력소모는 더 작게 만들어야합니다. 이런 모순 극복의 역사가 30년 반도체 1위의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모순 극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선 인재육성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대표적인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직원이 6만 명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더리 인력이 2만 명입니다. 퀄컴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이 4만5천명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이 1만 명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것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유수의 대학들이 석박과정에서 삼성, SK 등 대기업의 후원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삼성은 마이크론에 SK는 삼성에 인력이 유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0년 기술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충 회원분들과 대한민국의 기술과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경제 동향

◆ 통계청, 「2023년 4월 고용동향」 발표 (5.10)

○ 2023년 4월 취업자는 2,84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4천명(1.3%)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숙박및음식점업(17만 1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8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9만 7천명), 도매및소매업(△6만 2천명), 건설업(△3만 1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4만명) 이후 47개월 연속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44만 2천명), 50대(5만 5천명), 30대(1만 5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1만 6천명), 40대(△2만 2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자는 8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6.9%) 감소

-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6.4%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9.1%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7.5%로 전년동월대비 2.4%p 하락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6천명(△1.0%)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12.4%)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3천명 증가한 235만 1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7천명 감소한 32만 4천명 기록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은행,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5.10)

- 2023년 3월 경상수지는 2.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67.7억달러 흑자) 대비 경상수지 규모는 65.0억 달러 감소
 - ※ 경상수지는 올해 1월~2월 적자를 지속했으나, 3월 다시 흑자로 전환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Delta 2.2('22.11) \rightarrow 26.8(12) \rightarrow \Delta 42.1('23.1) \rightarrow \Delta 5.2(2) \rightarrow 2.7(3)$
 - ※ 2023년 1분기(1~3월) 누적 경상수지는 4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1분기 누적 경상수지(148.8억 달러 흑자) 대비 경상수지가 193.4억 달러 감소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 55.7억달러 흑자에서 11.3억달러 적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는 전년동월 1.7억달러 흑자에서 19.0억달러 적자로 전환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등을 중심으로 36.5억달러 흑자 기록
- 이전소득수지는 3.5억달러 적자 시현
- 2023년 3월 금융계정은 13.8억달러 순자산 감소 기록

◆ KDI,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발표 (5.10)

- KDI가 5.10(수) 발표한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제품 수요의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4~3/4분기 중 반도체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힘.
-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수요는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교체 주기가 비교적 안정적인바, 반도체경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수요의 동반 하락은 반도체경기 급락의 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
-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교체 주기가 각각 4~5년, 2~3년임을 감안하면, 최근 반도체경기는 저점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분석. 다만, 서버와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다소 길어졌을 가능성도 존재.

Ⅲ. 노동경제동향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물량의 10% 감소는 국내총생산(GDP)을 0.78% 감소시키고, 반도체가격의 20% 하락은 GDP를 0.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KDI는 시스템반도체 비중의 확대가 경기 변동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권고
 - 반도체산업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다변화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바,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 필요

◆ 기획재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5.8)

- 기획재정부는 5.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 신규 조성·딥테크* 유니콘 1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

* 딥테크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분야로, 기술 활용을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의 4대 전략으로 ❶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❷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❸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❹법령·기준정비 및 범부처 추진체계 구성을 포함.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5.8) 참고

- ❶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 민관협력하여 첨단 분야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 ❷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지원 등

Ⅲ. 노동경제동향

- ③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민관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 가속화,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강화,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 등
- ④ (법령·기준정비 및 범부처 추진체계 구성)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 및 실증기준 마련,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2. 노사 동향

◆ 정부와 여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 정부는 5. 9「국정과제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출범 이후 1년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중심으로 달성한 노동개혁 성과 발표

-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조 아래 ▲취임 첫해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치, ▲고용세습 단체협약 개선, ▲채용절차법 준수율 개선 등을 달성했다고 강조

[참고]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핵심 성과 주요 내용(노동개혁 관련)

구분	주요 발언								
[성과 1] 취임 첫해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치	<div>▪ 취임 첫해 근로손실일수(2022. 5. 10 ~ 2023. 4. 28) : 275,356일(前 정부 대비 74% 감소)</div> <div>[참고] 취임 첫해 근로 손실 일수</div> <table><tr><td>이명박 정부</td><td>박근혜 정부</td><td>문재인 정부</td><td>윤석열 정부</td></tr><tr><td>약 69만일</td><td>약 65만일</td><td>약 106만일</td><td>약 27만일</td></tr></table>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약 69만일	약 65만일	약 106만일	약 27만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약 69만일	약 65만일	약 106만일	약 27만일						
[성과 2] 고용세습 단체협약 개선	<div>▪ 고용세습 단체협약 63건* 중 58건 개선(92.1% 시정)</div> <div>*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 실태조사(2022. 5, 100인 이상 단협 1,057건) 결과 위법한 단협 총 63건 확인</div>								
[성과 3] 채용절차법 준수율 개선	<div>▪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div> <div>※ 채용절차법 관련 주요 점검 항목 : ①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② 거짓 채용광고 금지, ③ 채용강요 금지</div> <div>[참고] 채용절차법 위반 적발 비율</div> <table><tr><td>2020년</td><td>2021년</td><td>2022년</td></tr><tr><td>11.5%</td><td>5.8%</td><td>2%</td></tr></table>	2020년	2021년	2022년	11.5%	5.8%	2%		
2020년	2021년	2022년							
11.5%	5.8%	2%							

○ 고용부는 5. 8 주요 실·국장 및 전국 지방관서장 대상「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기초로 한 노동개혁 추진 계획* 발표

Ⅲ. 노동경제동향

* 노동개혁 추진 계획 : (6월)「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및「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발표
(하반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등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법 정비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여당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5. 9「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참석자 : (좌장)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의도 연구원장)
(발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수진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동 문제들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발언

○ 경총은 5. 9「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 경총은 4. 18~25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진행

-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고
답변했고, 응답자 과반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이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29.6%),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17.5%) 순으로 응답

◆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노정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

○ 고용부는 5. 11 노조 재정 관련 서류미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를 거부한 37개 노조에
노조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 발표

Ⅲ. 노동경제동향

* 고용부는 4. 21~5. 3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양 노총을 비롯한 37개 노조는 현장조사 거부

- 특히,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 한편, 양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

- 한국노총은 5. 9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개혁 중단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요구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당 회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이라 주장하고, 연대 강화로 노동개혁을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

- 민주노총은 5. 10「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정권 퇴진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5. 11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진행

* 민주노총은 5. 11 고용노동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 등에서 결의대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공동행동 진행

◆ 민주노총은 산하 주요산별 연맹(노조)들을 중심으로 대(對)정부 투쟁 동력을 강화 한다는 방침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5. 8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 31 주야 4시간 총파업 강행 발표

- 금속노조는 정부에 5. 4까지 ▲노조 탄압 중단, ▲고용부 장관 경질 등 대정부 요구안의 전면 수용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

- 그러나 금속노조는 5. 31 총파업의 목적으로 정권 심판,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우고 있어 불법 정치피업에 해당

Ⅲ. 노동경제동향

- 공공운수노조는 5. 9「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제 등 저지를 위한 9~10월 공동파업 진행 예고
 -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조직 대표자 대부분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건설노조는 5. 16~17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
 - 또한 건설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에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및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